

# 오직 “콘스라트” 하나의 제품만으로 승부건다

## 전북 남원 동아산업 오용섭 사장



▲동아산업 오용섭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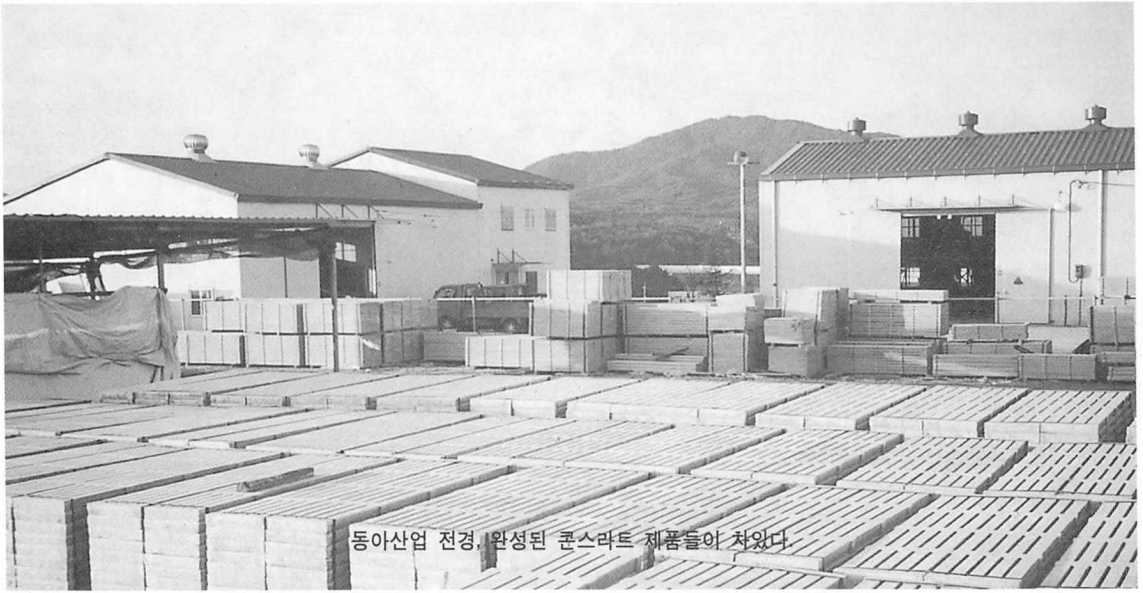
**국** 내 양돈산업은 미국, 캐나다, 덴마크 등 다  
른 여러 나라에 비하면 돼지사육 환경이  
여러모로 불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우선  
배합사료의 경우 그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옥수수 등을 미국 등지에서 수입해 급여하고 있  
는 실정이며, 4계절이 뚜렷한 관계로 각 계절마다  
온도와 환기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위해 돈사  
시설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국토면적이 협소  
한 관계로 분뇨처리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는 등 실로 어려운 상황에서 양돈산업이 유지  
· 발전되고 있다.

그 중 질병과 분뇨처리 문제는 향 후 양돈산  
업이 발전해 나가는데 가장 큰 문제이자 걸림돌  
이라 할 수 있다. 분뇨처리의 경우에는 최근 여  
러 가지 방식이 소개되고 있으나 일단 분뇨 노를  
분리수거하여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의  
돈사시설은 스크레퍼와 함께 분뇨가 빠지는 부분  
은 콘스라트를 이용하는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  
다.

### 콘스라트 한제품만을 고집해온 오용섭 사장

전국 콘스라트 생산업체중 국내 시장점유율  
75% 이상으로 이 분야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  
고 있는 동아산업(주)(전북 남원시 용정동 83-2  
광치농공단지, ☎0671-626-0452/3) 오용섭 사장은  
지난 94년 5월 1일 이 회사를 창업한 이후 끊임  
없는 제품개발과 더불어 오사장이 직접 전국 각  
지를 콘스라트를 신고 다니며 제품을 홍보하는  
등 무단히 노력한 결과 5년이 지난 98년말 현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게 되  
었다.

콘스라트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그 당시에  
는 이 제품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  
로 제품을 알리는데 주력했었으나 한 번 알려지  
기 시작한 후로는 콘스라트 주문량이 공급을 훨  
씬 넘어 주문량을 맞추느라 야근 및 휴일도 쉬지  
않고 제품 생산에 매달릴 정도로 전폭적인 인기  
를 끌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동아산업에서 제  
조한 콘스라트를 설치한 양돈장은 축산기술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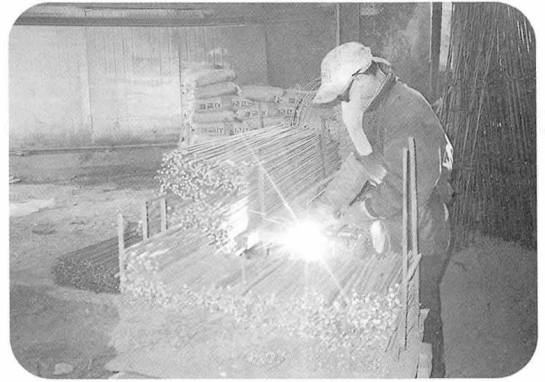
동아산업 전경, 완성된 콘스라트 제품들이 차있다.

소, 영광 축협중돈사업소, 이천 미원농장 등 대형 양돈단지 50여개와 전국 3,000여개의 크고 작은 농가에 이른다

### 보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 엮보여

콘스라트가 처음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했을 당시에는 분뇨가 밑으로 잘 떨어지지 않는다던가 표면과 모서리 등이 거칠어 모든의 유두가 상하고, 비육돈이 다리를 다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러한 문제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보다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데 주력하였다.

동아산업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은 휘어짐과 꼬임이 없이 견고하게 제작되었는데 이는 철근 연결부분을 용접으로 잘 결속하고, 금형틀에 넣어 성형한 후에 완성된 제품을 건조시키는 경우 수분을 적당히 맞추어 건조시키는 등 특히 신경을 써서 제품을 제작하였기 때문이며, 분뇨배출구와 모서리 등 각진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일일이 갈아서 부드럽게 처리하여 돼지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한 것 등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끈임없는 노력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농장 방문시 농가가 원하는 사항들을 지나치지 않고 기억해 두었다가 이를 제품생산에 곧바로 접목시키는 등 소비자의 욕구에



▲▲콘스라트 모형에 맞추어 철근을 용접하는 장면  
▲콘스라트 모형의 금형틀에 용접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성형하는 장면

발빠르게 대처하는 센스를 보이기도 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오 사장이 그 짧은 기간에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① 완성되어 나온 콘스라트, 합판 바닥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다가 제품을 놓는다. 여기서 비닐이 하는 역할은 수분이 합판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③ 패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분뇨배출구. 모서리등을 부드럽게 다듬어 주고 있다.



② 증기양생실, 완성되어진 콘스라트를 이동시켜 여기서 24시간 동안 95°C의 수증기로 양생시킨다.



④ 완성된 제품이 양돈장으로 가기 위하여 트럭에 선적되고 있다.

## 장사꾼보다는 신용 넘치는 사업가이고 싶어

올해 초 IMF로 인한 국내 경기는 상당히 위축되어 시멘트, 철근, 금형 등 각종 원자재 값이 20~30% 이상 올랐지만 오 사장은 제품값을 동결하였다. 이 시기에 배합사료값과 약품값 등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태였으며, 설상가상으로 돼지고기 소비도 급격히 하락하여 양돈농가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 사장은 이러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품값 동결을 단행한 것이었다. 물론 오 사장이 자금의 여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오 사장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국을 누빌 당시 많은 양돈농가들이 도와줬듯이 본인도 양돈농가들에게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에서였다. 지금 현재 동아산업의 미수금이 10억원을 넘었다

고 한다. 그러나 오 사장은 그리 크게 걱정하는 눈치는 아니다.

또한 오 사장은 신용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주로 어음으로 받은 자금을 다시 돌리지 않고 현금으로 즉시 결제하는 등 신용을 생명으로 알고 사업을 해왔다고 한다. 물론 빚은 없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오 사장의 신념이기 때문이다. 고의든 타의든 남에게는 절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오 사장이 자사 제품에 대하여 가격 동결을 한 이면에는 결코 돈만 벌겠다는 장사꾼이 아니라는 무언의 표출인 것이다.

오 사장은 오직 열심히 일하는 사업가이기를 바라고 있다. 어려운 IMF 시대에 직원들이 작업을 잘할 수 있도록 작업라인을 자동화한 것과 하루라도 늦지 않게 두터운 월급봉투를 직원들에게 쥐어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다.



오직 콘스라트 한제품만을 고집해온 오용섭 사장은 철저한 신용과 콘스라트 한 제품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다.

추진하고 있었다. 거대한 중국시장을 바라본 것이다.

###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이 신념

일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돈을 벌면 된다는 오 사장은 청소년 선도,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사업도 남다르다. 작년에 있었던 북한에 축산물보내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여 1억8천만원의 자금을 모아 북한에 보내기도 하였다고 한다.

항상 미리 연구하고 검증된 상태에서 시행착오 없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은 오 사장이 바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자세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시행착오는 곧바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또한 콘스라트 한제품으로 한우물을 판 것 또한 이것 저것 손을 뻗치게 되면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물론 콘스라트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마지막으로 오직 콘스라트 생산에만 전념한 것이 오늘의 성공비결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오용섭 사장은 양돈업계에 대해서도 양돈농가들이 너무 단시간 내에 투자비를 회수하려고 하는 것 같이라며, 너무 과도한 시설투자를 지양하고 최소한 10년은 바라보고 양돈에 종사해야 한다고 나름대로 조언한다.

어떤 사업이던간에 자기 성격과 수준에 맞는 사업을 해야한다는 오 사장은 부인 임엄전씨와의 사이에 1남 2녀의 귀여운 자녀들을 두고 있다.

오 사장은 필자가 찾아간 그 시간에도 다음날 새벽 4시에 제주 탐라 및 산청양돈단지에 제품을 배달하기 위해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취재 : 이병석) **양돈**

### 또 다른 도전, 해외 진출

축산기자재의 경우 '98년은 전년 대비 내수시장이 5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동아산업은 조업률이 97년 140%에서 98년 110% 유지로 전년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조업률을 보여 IMF 시대에도 잘나가는 기업임을 보여주었다. 물론 철재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들어오는 트라이바 등의 바닥재에 비해서 콘스라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과, 꾸준한 제품 연구 개발로 좋은 제품을 생산해 냈으므로 인한 농가의 콘스라트에 대한 인식 변화로 제품 주문이 늘어난 것도 동아산업이 조업률을 높게 유지하는데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오 사장은 앞으로 3~4년을 내다보고 있다. 당장 올해에는 신축돈사의 50% 이상, 증·개축돈사에 대한 영업확대 등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오 사장은 더 먼 미래를 바라본다. 계속되는 국내시장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해외시장 개척은 뒷집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미 지난 해에는 중국 북경(北京)에 대규모 양돈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업체와 함께 콘스라트를 현지 생산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진출하여 담금질을 한 상태이며,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연길로 진출할 것을 구체적으로